경제학 신조류

人性論的 경제 분석 방법

인성론적 경제 분석 방법의 대두

- **(합리성에 대한 인식 전환) 전통적 경제 분석 방법이 현상 분석 및 미래 예측에서 한계를 보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人間'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함**
  - 현실 경제와 그 행위 주체인 인간이 매우 복잡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경제 분석 방법은 인간의 행동을 '合理性(rationality)'이라는 전제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음. 이는 인간의 복잡하고 기복이 심한 심리적인 측면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가정임
  - 현실 세계는 세계화, 정보화 등의 확산으로 점점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경제 분석 방법은 여전히 모형의 단순화를 강조한 나머지, 현상 설명력과 미래예측력이 약해지고 있음[1)]
- **(디지털 경제와 경제 윤리)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경제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기적 경제 행위의 추구로 인한 도덕성의 파괴를 야기하는 한편, 경제 행위 주체인 인간을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소외시킴으로써 비윤리적인 자본주의를 초래하여 왔음
  -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경제 행위에 있어서의 匿名性과 非對面性이 보장되면서 경제 윤리(economic ethic)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인성론적 경제 분석) 이에 따라 합리적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이 아닌 인간 본연의 모습을 경제 현상 분석의 중점으로 삼는 새로운 경제 분석 방법들이**

1)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70년대부터 나타났음. 한 예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경우, 그동안 거시 제 정책 처방의 기본 원리로서 활용되는 양자간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던 필립스 곡선 가설이 스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적용이 더 이상 어려워짐

등장하게 됨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방법은 그 내용에 따라 행동주의적, 심리학적, 윤리적, 제도적 접근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인성론적 경제 분석의 주요 내용

- **(행동주의 · 심리적 접근) 경제 행위 분석에 있어 이성적(rational) 측면보다 심리적인(psychological)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견해임**
  -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behavioral approach)에 따르면 인간의 선택 행위가 경제이론에서 가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완벽한 합리성을 갖춘 의사 결정자(decision maker) 모형은 정당한 이론 체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심리적 접근 방법(psychological approach)에 따르면 인간은 최적 상태를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결정은 최적화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하에서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함
    → 즉, 사람들은 과거 경험의 축적을 통한 지식(knowledge)에 의존하여 경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행동주의적, 심리적 접근 방법은 경제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간의 경험에 입각한 지식으로 간주함
  - 이는 지식 혹은 정보의 양이 경제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경제 현상에 대한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윤리 · 제도적 접근) 경제학의 가치 중립성(neutrality of value)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으며, 경제 현상의 분석에 있어 기존의 효율성 및 공평성 기준 이외에 윤리적인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견해임**
  - 윤리적 접근(ethical approach)은 기존에는 실증(positive) 경제학, 즉 경제학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했으나,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규범(normal) 경제학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 이익의 추구는 도덕적인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들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함

- 한편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은 각종 경제 제도나 정책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환경의 영향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판단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 판단도 중요하다는 견해임
- 결국 윤리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자발적인 윤리성과 제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 행위 분석에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시사점

-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 경제 현상의 분석과 이해에 있어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전통적 이론적 기반인 단순 인과관계에 의한 선형 원리가 갖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제 현상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됨
  - 즉, 경제 구조 내부의 시스템이 경제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새로운 방법들의 공통적인 인식임
  -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현상들을 능동적으로 수용·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디지털 시대의 정부 정책) 디지털 시대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유통과 윤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정보의 획득 및 유통량에 따라 경제 성장이 좌우되고,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가상 공간과 가상 경제 주체는 기존의 윤리 기준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행위를 생산할 수 있음

- **(기업윤리 확립)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업 윤리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윤리 의식이 수반되어야 함**
  - 21세기의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는 이를 뛰어넘어 근로자, 경영진, 주주 등의 기업 구성 인자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는 디지털 시민 정신(digital citizenship)이 필요함

(박용주 연구위원 *yjpark@hri.co.kr* ☎ *3669-401*)